

# 이란: 제 4 제국

버전 2.2

## 하마스-헤즈볼라-시리아-이란-이라크 반군 연합: “해이해진” 대응 또는 “제4제국”

마크 랑판(Mark Langfan)

1정치/테러 운동의 이질적 개별 주축인 하마스-헤즈볼라-시리아-이란-이라크 반군 연합을 천천히 조사하는 것은 어찌면 마음 편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다른 쪽에서라도 생각지도 못한 어두운 현실, 즉 현재 차츰 커지는 핵능력을 지닌 제4제국(역자: 나치가 주장한 제3제국과 맥락을 같이하는 세력에 대한 마크 랑판의 표현)이 곧 유대교-수니파-기독교-불교-힌두교 세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이제껏 시리아와 이란 서로에게서, 그리고 두 나라의 강대한 군대와 두 나라의 나라 차원의 지원에서 이라크, 하마스, 헤즈볼라 반군 활동을 분리시켜왔던 현재의 거짓된 가면을 벗길 수 있을 것입니다. 냉혹한 현실은 하마스/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전쟁과 이란의 후원을 받고 있는 이라크 반군의 요소들이, 미국과 전세계를 상대로 한 이들의 원천인 강대해져 가는 이란의 제4제국 연합과 같이 동전의 양면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그러한 이란의 제4제국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이들은 시리아는 알라위테아(Alawite)이고 이란은 시아파(Shiite)이기 때문에 그러한 연합이 가능할 리 없다는 유연비어를 경건하게 읊조릴 것입니다. 그러나, 알라위테아는 시아파의 종교 지도자를 일컫는 이맘(Imam), 9세기 하산 알 아스카리(Hasan al Askari)에게서 유래된 비밀 시아파 분파입니다. 시리아의 이 소수 알라위테아 시아파 분파는 실제로 시리아에 있는 수많은 다수 수니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4제국 연합은 순수 트웰버(Twelve) 시아파 연합입니다. 더 나아가 역사적으로 볼 때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 독일과 이탈리아가 군대 연합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고자 꼭 동맹을 맺었어야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의 시리아는 그때의 “이탈리아” 또는 더 약한 요소이며, 이란

은 그때의 “독일” 또는 새로운 제4제국 연합의 더 강한 요소입니다. 이 두 관계 속에서 자주 엮보이는 섬뜩한 유사성에는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즉 30년대에 무솔리니가 거의 히틀러와 대등한 동반자로 보인 것과 같이 아사드(Assad) 역시 현재 이란의 대등한 동반자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현실은 지금의 현실과 같습니다. 그 당시 한 명의 총통이 있었다면 현재 한 명의 총통은 이란의 대통령 아흐마디네자드(Ahmadinejad)와 종말 마디스트(Mahdists)에 대한 그의 카발입니다. 독일이 이탈리아를 이용했듯, 이란도 사실상 시리아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30년대(역자: 나치의 1930년대를 상징)”에는 전략적 이동을 용이하도록 한 후, “40년대”가 되면 이란이 통치자로 등극할 것입니다. 이란의 비논리적이며 불필요한 헤즈볼라 전쟁의 점화는 이란의 핵 문제를 전략적으로 덮으려는 것이 아니더라도, 전략적

으로 시리아를 압박해, 독일이 이탈리아를 압박해 스페인 내전에서 연합한 것과 같이 전략적으로 혐오스러운 매수를 확정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란은 곧 무장친위대(aka Hezbollah)로 레바논을 점령하게 될 것인데, 이는 시아파식 현대적 나치의 오스트리아 합병(aka rape)이나 다름없습니다.

즉 최근 떠오르고 있는 제4제국은 표면상 이질적으로 보이지만 서로를 연합으로서 지원하고, 서로를 연합으로서 방어하며, 완전한 연합으로서 서로를 위해 싸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의 연합입니다. 이란이 자국 영토에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이 물질적, 인적 지원과 기술적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으며, 종교적 허가가 이스라엘에 대한 헤즈볼라의 야전을 지원하는데 필수적인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란이 공개적으로 미군을 죽이도록, 이라크에 정식 이란 군복을 입은 이란군을 파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란이 이라크 반군에 제공한 죽음을 불러오는 IEDs의 병참적 지원, 금전적, 인적 지원으로 수백 명의 미군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극도로 치달은 불안정한 이라크 상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란의 이러한 교묘한 침묵의 실상은 이라크 내에서 이루어진 미국을 상대로 한 극도로 치명적인 전쟁으로, 명백하게 이라크에서 미군을 대패시키고자 목표하고 있습니다. 가자, 레바논, 이라크 무대에서 이란이 보인 악의적 행보는 각각 분리된 단순한 간섭 행위가 아니라, 미군의 파괴와 페르시아 만과 전세계에서 전략적 사회적 이익을 취하고자 구체적 의지로 시행된, 서로 관련된 통합적이며 목적이 분명한 전쟁입니다.

중요한 막간의 문제로 떠올랐던 호전적인 사담(Saddam)의 눈에 띄는 위협은 그와 비슷하지만, 조용히 러시아의 핵기술을 받아들여 개발하면서 진정 더 무시무시한 위협으로 성장한 이슬람-나치 이란을 가려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1940년도에도 러시아는 히틀러에게 프랑스와 영국을 대상으로 한 초기 대공습 기계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름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던 사담의 파멸은 이내 해결할 수



있는 재정난에 처한 이란으로 하여금 전세계가 이들의 악마성을 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추악한 머리를 들도록 유혹했습니다. 다행히 이 시기는 초기 핵기술 단계의 이란이 더 이상 막기 힘든 핵 무기를 갖춘 이란 제4제국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기 전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담의 파멸은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갖추고자 한 이란의 수 십년에 걸친 오랜 궤적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1995년에는 이를 위해 이란의 부시르(Bushehr)와 러시아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사실 사담의 위협이 아니더라도, 이란은 위협에 처하면 핵무기 공장을 갖추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를 공개적이며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실제로 시아파 제4제국이 존재한다면, 그 결과는 냉혹하고 극적이며 무시무시한 것이 될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파시스트 이탈리아가 현대에 환생한 듯한 시리아가 미국의 합법적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리아가 이라크 반군과 헤즈볼라 반군 모두의 핵심 공급원이라는 것은 더 이상 미국이 무시할 수 있는 작고 더러운 비밀이 아닙니다. 시리아는 사실상 하마스, 헤즈볼라, 이라크 반군의 핵심 공급원이며, 자국 영토에 안전한 피난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리아는 단순히 수동적인 “죄 없는 방관자”가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고의적이며 적극적인 교전국입니다.

사실 하마스, 헤즈볼라 또는 이라크 반군에 대해 시리아를 “죄 없는 방관자”로 대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관성 없는 태도는, 분명 하마스/헤즈볼라와의 소모전에서 이스라엘의 패배와 이라크 반군과의 소모전에서 미국의 패배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이로써 아사드 주니어는 이들에 대한 자신의 공개적 지원이 자신의 정권에는 비용이 들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정통성에는 크게 힘을 실어주는 행위로까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아사드는 무솔리니가 그랬듯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자신의 이러한 노력을 강화하는데 대담해질 것이며, 양쪽 분쟁에 부채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레이건, 부시의 리비아 대통령 카다피를 굴복시킨 “작전 엘도라도 협곡(역자: 리비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공습 작전)” 같은 거친 사랑을 아사드에게도 퍼부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순진한 얼굴을 한 이란의 작은 동반자인 시리아를 드러내는 것과 반군에 대한 시리아의 핵심 공급 라인을 차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리아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재앙에 가까운 무대책이 아사드 주니어를 이란의 줄개에 불과한 자신을, 킹 메이커 아사드 세니어로 착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이라크의 수니파 주민들은 시리아가 들여온 알카에다 반군 요소들을 근절하고, 사실상 미군을 보호하고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이 철수한다면, 이라크 수니파들은 시리아와 이란 연합에 의해 궤멸할 것입니다.

## 이란산 급조폭발장치: IED



### IED

(위 사진)

출처: 더 선데이 텔레그래프  
토비 한든(Harnden), 2006.08.20

### 현장

(오른쪽 사진)

출처: 더 선데이 텔레그래프  
토비 한든(Harnden), 2006.04.30

© The Sunday Telegraph 2006



제4제국의 실재에 대한 미국의 즉각적인 군사적 정치적 대응의 실패는 30년대에 미국이 독일 나치라는 제3제국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힘의 연합을 무시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게 될 것이며 이는 돌이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30년대에는 광활한 대양이 방어 지형으로서 역할했으며, 독일은 핵무기나 막대한 석유 그 어느 것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니다. 오늘날은 그때와 정확히 반대의 상황입니다. 이란은 싹트기 시작한 핵무기 능력이 있으며, 이란의 제4제국은 막대한 석유의 보고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란은 위축되어가는 위태로운 수니파의 종이 왕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이 왕국의 어마어마한 전략적 천연 자원들은 오늘날 전세계 경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들입니다. 이들은 현재 알려진 전세계 석유 보고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베트남과는 다릅니다. 이로써 이란은 중국과 러시아의 막강한 힘을 넘어선 엄청난 경제적 영향력을 갖고 이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촉즉발의 복잡하고 유감스러운 진실에 한가지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즉 MAD가 이란을 억제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자극할 것이라는 겁니다. 요컨데,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란은 이스라엘을 사실상 미군력의 투영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히틀러가 그레이트 브리튼(Great Britain)을 자신들의 유럽 지배권 장악을 방해하는 유일한 장애물로 본 것처럼 이란도 이스라엘을 중동과 전세계에 대한 자신들의 미래 지배권 장악을 방해하는 남아있는 유일한 장애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의 실수와 90년대 사담의 실수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들은 미국과의 “제2차 세계대전(역자: 상징적 의미)”에서 그레이트 브리튼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전에는 프랑스를 점령하는데 힘을 쏟거나 무너진 중동을 합병하는데 어떠한 시간 낭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석유가 풍부한 수니파 왕국의 표면상 분열은 전략적 분열이라는 그릇된 상황을 제공하여 힘을 모으고 있는 이란의 진짜 모습을 감추어 주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파멸시킨다면, 미국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란을 대상으로 한 세계대전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전투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이란을 대신한 무장 세력들은 완전한 중동 지배권 장악을 방해하는 남아있는 유일한 장애물들인 이스라엘과 미군을 없애기 위해 무자비한 치열한 지구전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라크 내 미국의 대참패/퇴각의 결과, 분명 이란이 요르단까지 이라크 남부를 군사적으로 점령할 것입니다. 그 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 주둔 중인 미국중앙군, 그리고 바레인에 주둔 중인 전체 미국 제5함대의 머리 위에 다모클레스의 칼(역자:언제 떨어져 내릴지 모르는 칼 밑에 있는 것처럼 항상 위기와 불안 속에 있다는 의미로 기원전 4세기 디오니시오스1세가 다모클레스를 한 올의 말총에 매달린 칼 아래에 얹힌 데서 유래한 말)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지금 제4제국의 가능성이 있는 나라를 상대로 자국과 동맹국을 보호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제4국의 “30년대(역자: 나치가 활동한 1930년대를 상징)”는 “40년대”, 또는 이란이 승리하게 되는 “40년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마크 랑판은 이스라엘 군문제에 대해 수많은 기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버전 1.0)는 2007년 1월 ‘주이쉬 보이스 앤 오피니언(Jewish Voice and Opinion)’에 기재된 것입니다.

## 이라크 내 미국의 패배/퇴각-이란 팽창 악몽 시나리오

### 1단계: 작전 다모클레스의 크레센트

전면적인 이라크 내 퇴각의 원인이 된 이라크 내 미군의 대패로 인해, 이란은 중무장한 알 쿠드(AI Quds) 혁명 수비대를 이라크 남부를 가로질러 1)시리아 국경, 2) 요르단 국경 그리고 3)사우디아라비아 국경에 대규모로 배치할 것입니다. 일단 이러한 배치로 인해 군이 강해지면, 이란은 이어서 중무장한 차량을 배치하여 남아있는 수니파를 궤멸하고 청소할 것입니다.



## 2단계: 구세주의 칼

- 1) 다란(Dhahran)에 있는 미군 지상 기지의 반격을 저지하고, 바레인(Bahrain)에 주둔 중인 미국의 제5함대 HQ를 위협하기 위해 이라크에서 다란에 이르는 남동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란의 군대/낙하산 부대 대공습.
- 2) 카타르(2a)에 있는 USHQ A는 미국의 제5함대 HQ, USHQ A 스스로를 보호하고, 제5 함대의 비상 전쟁 탈출구와 페르시아만 외부의 남아있는 항공모함 전투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실상 모든 공중 자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또한 느린 진군으로 인해 이스라엘 공군에 이란 군대(2b)를 대상으로 한 막대한 엄호 포격을 요청할 것입니다.
- 3) 이란은 공격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USHQ A를 위협하면서 페르시아만 연안 남동부 아래로 향하게 될 것이다.
- 4) USHQ A(4a)는 합동 US/NATO 작전 통제 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막대한 자금을 이용한 즉각적 보수 및 쇄신을 위해 이전에 철수한 이스라엘 시나이 공군 기지에 있는 이스라엘 항공 관제권 안에 있는 US/NATO HQ B (4b)로 철수합니다. 이는 이란의 공격시, 효과적인 퇴각로와 반격 지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NATO는 이란의 사우디 반도 공격에 직면해 US/NATO HQ B가 활성화될 경우, 터키를 포함한 전체 NATO 공동 상호간의 방어 약정이 촉발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 5) 이란은 오만의 전략적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야드(Riyadh) (5a)로 향하거나 UAE (5b)를 통해 그곳 연안으로 이동합니다. 이는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후반부를 장악함으로써 페르시아 만을 봉쇄하고 남아있는 미국 군함을 궁지

- 로 몰아넣기 위한 것입니다.
- 6) 이란이 시리아 사막을 통과하여 이라크에서 타북(Tabuk) (6a) 까지 남서 방향으로 공격하거나 다란에서 리야드(6b)까지 서쪽 방향으로 이동한다면, 이란의 목표는 메디나(Medina)와 메카(Mecca)의 성지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스라엘 공군은 미군이 전략적 시간을 획득하고, US/Nato HQ B가 반격을 위해 재편성될 수 있도록 이러한 군대에 막대한 공격을 가해야 합니다.
- 7) 사우디 아라비아 공군은 반격을 위해 즉각 US/Nato HQ B로 퇴각해 미군 지휘 하에 통합되어 가치 있고 효과적인 군대로서 역할해야 합니다.
- 8) 그 후, 완전히 활성화된 작전을 개시한 US/NATO HQ B는 하나의 합동사령부 안으로 통합될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주변국 공군과 함께 이란의 추가적 시리아 사막 이동 또는 서쪽으로의 이동 또는 리야드에서의 이동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 9) 미국이 사우디 반도 남서부 사분면에 대한 제공권과 지배권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 비로서 육군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지상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다(Jiddah)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 10) 마지막으로, 이란 산맥 크레스트라인은 공습에 상대적으로 강한 이란의 내부 핵심부를 만들 수 있는 자연의 지형학적 방공 요새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란을 향한 모든 공격 계획은 미국 남북 전쟁 스타일식, 또는 아나콘다식 장기적 포위 작전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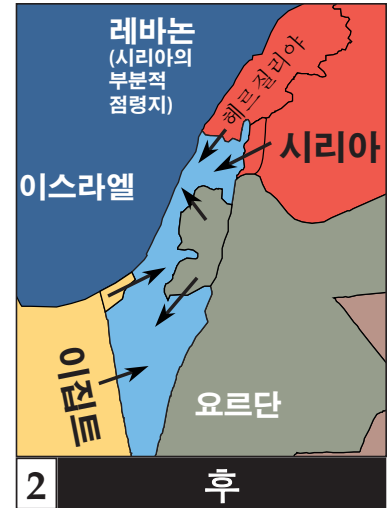


# 이스라엘의 전략적 가치

## 911 테러 이후 테러 전쟁 시나리오



팔레스타인 웨스트뱅크(West Bank)/가자 지구에서 병력을 철수시킨다면, 이스라엘은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자 중동의 테러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보루라는 위치에서, 공격만을 유발하며 미군을 보호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국도 방어할 수 없는, 미국의 짐으로 전략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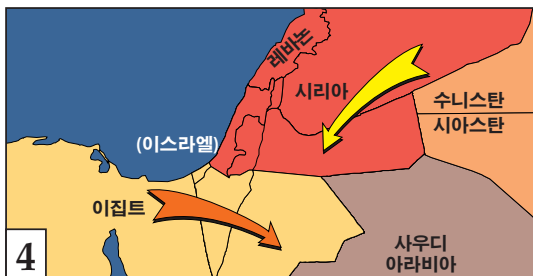
1.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미국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이스라엘: 골란 고원(a), 웨스트뱅크 산맥(b) 그리고 가자 지구(c)를 이스라엘 군의 통제 하에 둠으로서 이스라엘은 중, 장기적 위협은 있지만 단기적 위협에서는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2. 공격만을 유발하는, 자국을 방어할 수 없는 미국의 전략적 짐으로서의 이스라엘: 골란 고원, 웨스트뱅크 산맥 그리고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의 통제 하가 아닌 적대적 아랍 국가의 통제 하에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전략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단기적 위협에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아랍의 테러 행위가 그러한 분쟁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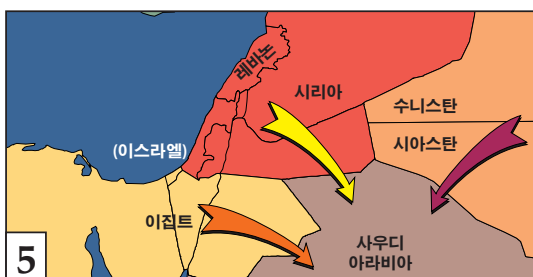
### 3. 이스라엘: 첫 번째 도미노

이스라엘에 골란 고원과 웨스트뱅크 산맥이라는 자연의 방어물이 없었다면, 그리고 비난 받을 행위를 동원했다면,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이집트에 의해 간단히 패하고 점령되었을 것입니다. 군국화된 팔레스타인 국가조차, 시리아인이나 이집트인들을 군대로 영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헤즈볼라, 시리아인과 이집트인들은 모두 예루살렘을 되찾고자 갈망하며 싸워나갈 것입니다.



### 4. 요르단: 두 번째 도미노

요르단은 전략적 보호자인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군사적으로 강대한 헤즈볼라, 시리아, 이집트와 시아스탄/이란에 의해 손쉽게 점령 당했을 것입니다. 시리아는 요르단을 시리아의 남부 지방으로 보면서 명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켜 나갈 것입니다.



### 5. 사우디 아라비아: 세 번째 도미노

사우디 아라비아는 북부 국경지대와 접해있는 나라인 군사적으로 강대하지만 석유가 부족한 이집트, 시리아, 시아스탄/이란에 의해 멸망할 것입니다. 서방 세력들은 수에즈 운하를 장악하지 못한다면 사우디 아라비아를 다시 지원하거나 방어할 수 없을 것입니다.

Print

Islamic Republic



Iranian Supreme Leader Khamenei Photo: Reuters

click here to enlarge text

click here to reduce text

“온건주의 지도자와 극단주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이와 같은 온건파 메뚜기가 극단주의 자들을 필요로 합니까?”

ML의 주의 사항

하메네이(Khamenei): 이슬람 세계를 분열시키는 이스라엘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대통령에게, '시온주의 정권'은 이슬람 세계를 분열시키기 위해 서방 세력이 세운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슬람 지역의 문제는 '미국의 침략과 시온주의자들의 범죄가 끝나는 시대'가 도래하자마자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디코헨(DudiCohen)

“시온주의 정권의 수립은 이슬람 세계에 지속적인 충동을 일으키기 위해 서방 세력이 자행한 행위였습니다.” 이란의 종교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Ayatollah Seyyed Ali Khamenei)는 이란을 방문 중인 파키스탄의 대통령, 페르베즈 무샤라프(Pervesh Musharraf)와의 만남에서 월요일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최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도착한 무샤라프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지원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죄를 자행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침략이 끝나고, 시온주의자들의 범죄 자행이 중단되는 시대”까지는 중동과 관련된 어떠한 계획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월요일, 테헤란에서 아흐마디네자드(Ahmadinejad)(왼쪽), 무샤라프와 하메네이 (사진: AFP)

또한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이 약하다는 것은 레바논 전쟁 동안 분명해졌으며, 하마스 정부의 “시온주의자에 대한 저항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돌파구를 보여주도록 돕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팔레스타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나탄즈(Natanz)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328대의 원심분리기

한편, 유럽 외교관들은 월요일 이란이 나탄즈의 지하 핵시설에 164대의 원심분리기를 연결한 카스케이드 2세트를 설치했으며, 이로써 본격적인 우라늄 농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서방 세력과의 대치상태는 더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이 카스케이드가 내부에 우라늄을 공급하지 않은 채로 짧은 테스트를 거쳤으며, 이 테스트가 성공적일 경우 핵연료 물질을 추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328대의 원심분리기는 앞으로, 설치 완료할 계획인 원심분리기 3000대에 대한 시작일 뿐입니다.

이란은 이란 사막 중앙에 있는 대공포로 빙 둘러 요새화되어 있는 방대한 지하 핵시설에서 소위 산업수준 농축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파이프, 전기 케이블과 기타 장비의 설치 작업을 최근 모두 완료했습니다.

Print 

Strategic Threat



President Ahmadinejad Photo: AP

 click here to enlarge text

 click here to reduce text

이란: 이스라엘과 미국은 곧 궤멸될 것이다.

아흐마디네자드: 미국과 이스라엘이 곧 궤멸될 것이라고 장담  
야코브 래핀 (Yaakov Lappin)

이란의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가 화요일, 시리아 외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은 곧 궤멸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란의 국영방송 IRIB(Islamic Republic of Iran Broadcasting)가 IRIB 웹사이트의 한 보고서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란의 공식 파르스 통신사는 다음과 같은 평도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는...미국과 이스라엘 시온주의 정권이 곧 궤멸될 것이라고 장담했다."**고 이란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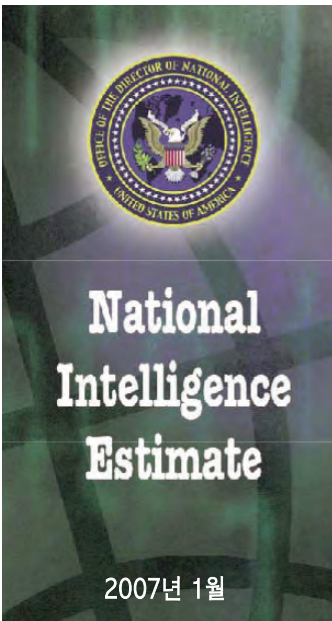
"이슬람교도, 특히 시아파와 수니파 사이에 촉발된 분쟁은 시온주의자들과 미국이 이슬람 나라들을 지배하고 이들의 자원을 약탈하고자 만든 음모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흐마디네자드는 이런 말도 덧붙여 말했습니다.

**또한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궤멸을 목표로 한 더 광범위한 계획을 위해 레바논에서 직접 여러 행사들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지역 국가들에게 "레바논 사람들의 이슬람적 저항을 지원하고, 물론 곧 멸망할 시온주의 정권을 약화시킬 수 있도록 서로 다른 팔레스타인 단체들 사이의 연대와 통합을 강화하는데 매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흐마디네자드는 최근 몇 달간 수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이 궤멸될 것이라고 위협했는데, 근래에 들어 그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한 나라 목록에 미국과 영국도 추가되었습니다.

**시리아의 외무부 장관, 웨일드 무알렘(Wailed Mualem)은 미국이 "이슬람교도의 대학살"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이슬람교도들 사이의 불화"를 조장한다고 비난했습니다.**

IRIB는 웹사이트를 통해 무알렘이 "평화와 평온의 시대를 확립하고, 더 나아가 이슬람교도들이 대량 학살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이 지역 국가들에게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 이라크의 안정화에 대한 전망: 앞으로의 도전

이라크 주변국의 영향력은 이라크 내부 사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이러한 외부 나라들의 개입이 이라크 내 폭력 사태나 안정화 전망에 대한 주요 원동력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는 이라크 내부 종파간 분쟁의 원동력은 자립적인 성격을 띄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이라크 시아파 무장세력에 대한 선택적이며 치명적인 지원은 명백히 이라크 내 분쟁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지속적으로 이라크에서 추방당한 바트당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면서 이라크로 들어가는 외국인 지하디스트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그 다지 적당해 보이지 않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빠른 철수가 일어났다면, ISF는 어느 종파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라크 주변국들은 이라크 종파들의 도움 요청이나 독자적인 판단 하에서 이러한 분쟁에 공개적으로 개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